

I. 상담실적

- 상담기간: 2023. 10. 31.(화) 06:00 ~ 23:00
- 상담건수¹⁾: 725건

II. 주요의견 내용

○ 방송 호평(4명)

- 프로그램명 : 「6시 내고향」 ‘수해의 아픔을 이겨낸 춘양 사과’
- 방송일시 : 2023. 10. 30.(월) 1TV (18:00-19:00)

해당 방송 덕분에 품질 좋은 농산물을 구매해 먹을 수 있어 즐겨 시청한다. 이날 경북 봉화의 사과가 소개됐다. 원래 수해를 이겨낸 사과가 더 맛있다는 말이 있는데, 이날 수해의 아픔을 이겨낸 사과가 소개돼 구매하고자 한다. 제작진들의 노고로 집안에서 좋은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어 감사하다.

○ 극본 제언(3명)

- 프로그램명 : 일일드라마 「우아한 제국」
- 방송일시 : 2023. 10. 30.(월) 2TV (19:50-20:30)

장기윤(이시강 분)이 장창성(남경읍 분)이 깨어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재클린(손성윤 분)에게 끊임없이 약을 먹였다. 그뿐 아니라 정우혁(강을 분)을 제거하기 위해, 그에게도 약을 먹였다. 가족들이 함께 시청하는 저녁 시간 대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가학적인 내용을 다뤄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공영방송의 파급력을 고려해 지나치게 잔인한 내용은 자제해주기 바란다.

III. 청원현황

- 신규청원
 - 2건.
- 이슈청원 및 특이사항
 - 없음.

※ 참고: KBS홈페이지->시청자권익센터->시청자청원(<http://petitions.kbs.co.kr>)

1) 프로그램 별 인터넷 의견 건수는 집계에서 제외

IV. 일일 상담내용

1. 상담실적 : 총 725건

○ 형태별 분류

전화	인터넷	우편·FAX	방문	ARS ²⁾	계
329	36	-	-	360	725

○ 채널별 분류

1TV	2TV	라디오	DMB	인터넷	非채널	계
369	229	20	-	-	107	725

○ 내용별 분류

의견제시	단순문의	기타	계
133	592	-	725

○ 분야별 분류

방송	기술	경영	기타	계
579	2	51	93	725

시청자 의견	문 의
<p>【시사·교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6시 내고향」<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송 호평○ 「사랑의 가족」<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송 호평 <p>【연예·오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요무대」<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송 제언 <p>【드라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일드라마 「우아한 제국」<ul style="list-style-type: none">- 극본 제언 <p>【라디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원국의 지금 이 사람」<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송 호평○ 「김태훈의 프리웨이」<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행자 발언 제언○ 「출발 FM과 함께」<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행자 제언	<p>【방 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6시 내고향」<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리 진흙 구이’ 연락처 문의 73건○ 「가요무대」<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청’ 문의 11건○ 「2TV 생생정보」<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송 정보’ 문의 11건○ 「아침마당」<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송 정보’ 문의 9건○ 「KBS 뉴스 9」<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도 불만’ 7건 <p>【기 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난시청」 문의 1건○ 「수신기술」 문의 1건 <p>【경 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홈페이지」 문의 20건○ 「프로그램 구입」 문의 20건○ 「견학」 문의 3건○ 「전화교환」 문의 3건○ 「주차」 문의 3건 외 2건 <p>【기 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전 문의사항 포함 93건

2) ARS 항목 상세내용: 제보, 홈페이지문의, 프로그램 구매문의, 출연자 및 출연업체 전화번호 안내

2. 프로그램별 의견

의견	세부내용
[시사·교양]	
방송 호평	<p>○ 「6시 내고향」 ‘수해의 아픔을 이겨낸 춘양 사과’(4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 10. 30.(월) 1TV (18:00-19:00) - 해당 방송 덕분에 품질 좋은 농산물을 구매해 먹을 수 있어 즐겨 시청한다. 이날 경북 봉화의 사과가 소개됐다. 원래 수해를 이겨낸 사과가 더 맛있다는 말이 있는데, 이날 수해의 아픔을 이겨낸 사과가 소개돼 구매하고자 한다. 제작진들의 노고로 집안에서 좋은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어 감사하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 외</p>
방송 호평	<p>○ 「사랑의 가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TV (토) (13:05-14:00) - 해당 방송을 너무 감동적으로 시청하고 있다. 본인도 몸이 불편하지만, 본인보다 더 불편한 몸으로도 당당히 자신의 삶을 일구며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자극도 받고 감동도 받는다. 유익하고 좋은 방송을 제작해주어 감사하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p>
[연예·오락]	
방송 제언	<p>○ 「가요무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 10. 30.(월) 1TV (22:00-22:55) - 흘러간 노래를 부르며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게 「가요무대」만의 장점인데, 최근 들어 그 의미가 퇴색한 것 같다. 젊은 층 가수들이 대거 출연하다보니 프로그램 특유의 감성이 사라진 느낌이다. 「가요무대」만이 가져왔던 분위기를 살리려면 원로 가수 위주로 섭외되어야 할 것 같다. 또한 원곡 가수가 살아있다면 원곡 가수를 섭외하는 것도 고려해주기 바란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p>

의견	세부내용
[드라마]	
극본 제언	<p>○ 일일드라마 「우아한 제국」 (3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 10. 30.(월) 2TV (19:50-20:30) - 장기윤(이시강 분)이 장창성(남경읍 분)이 깨어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재클린(손성윤 분)에게 끊임없이 약을 먹였다. 그뿐 아니라 정우혁(강을 분)을 제거하기 위해, 그에게도 약을 먹였다. 가족들이 함께 시청하는 저녁 시간 대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가학적인 내용을 다뤄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공영방송의 과급력을 고려해 지나치게 잔인한 내용은 자제해주기 바란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 외</p>
[라디오]	
<div data-bbox="161 925 303 958">방송 호평</div> <div data-bbox="105 1429 359 1462">진행자 발언 제언</div>	<p>○ 「강원국의 지금 이 사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R (월-금) (15:30-15:58) - KBS TV와 라디오를 사랑하는 청취자이다. 특히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강원국의 지금 이 사람」을 칭찬하고 싶다. 매회 다른 게스트가 출연해 한 가지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루는 점이 굉장히 유익하다. 늘 풍부한 내용으로 도움이 되는 방송을 제작해주어 감사하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p> <p>○ 「김태훈의 프리웨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 10. 31.(화) 2R (07:00-09:00) - 현직 교사이다. 이날 ‘덧글로 본 세상’에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발표한 학생생활규장 길라잡이를 다뤘다. 이후 진행자가 “그럼 지금까지는 학생들이 자도 내버려뒀단 얘기인가요?”라고 발언했다. 학교마다 상황이 다르며, 아이들의 인권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교사들이 많다. 교사들이 많이 듣는 방송인데 경솔한 발언인 것 같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p>

의견	세부내용
진행자 제언	<p>○ 「출발 FM과 함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FM (월-일) (07:00-09:00) - 클래식 음악을 감상하기 위해 KBS 1FM을 애청한다. 그런데 해당 방송의 경우 진행자가 음악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다소 많이 하는 것 같다. 다른 채널도 아닌 클래식 FM은 음악 위주의 방송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음악 외적인 이야기보다는, 1차적으로 음악이 주가 되는 진행을 해주기 바란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p>